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4.(수) 20:45 배포 2026. 11. 4.(수)

산업부 장관, 中 상무부와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점검

- 한중 상무장관회의 개최, FTA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등 논의
- 제9차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방문, 우리 소비재 수출 확대 지원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11월 4일(수) 중국 상하이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중 정상회담('25.11.1, '26.1.5) 후속조치 이행상황 등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개최되는 한중 상무장관회의로서, 김 장관과 왕 부장은 한중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 간 우호적 분위기가 긴밀한 실물경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우선 양측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2018년 개시 이후 장기간 이어져 왔으나, 올해 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특히, 올해 총 5차례의 공식협상 등을 통해 이룬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중국의 새만금 투자조사단 파견, 한국의 중국 지방정부(장쑤, 산둥)와 교류회 개최 등 올해 성과를 돌아보며, 한중 산업단지 중심의 협력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더욱 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2026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내년초 제1차 한중 상무협력대화(장관급) 개최를 통해 한중 경제통상 협력사항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김 장관은 중국 상하이 국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중국 국제수

입박람회 개막식에 맞추어 박람회장을 방문하여 우리 참가기업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장관급이 동 박람회에 참석한 첫 사례로서 우리 기업의 대중 소비재 수출 모멘텀을 극대화하기 추진되었다.

금년 박람회에는 우리 기업 200여개 社가 참가하였고, 단체관으로 조성된 한국기업관에는 전년 대비 약 두 배 확대된 80여개 社가 참가하여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소비재를 선보이게 된다. 아울러 K-뷰티 라이브 커머스와 메이크업쇼, K-푸드 시식 행사 등 중국 소비자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여 전시 효과를 배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통상 협력 과제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	책임자	과 장	김덕구 (044-203-5690)
		담당자	사무관	안호연 (044-203-5677)
			사무관	김지은 (044-203-569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